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쌀의 생육과정 체험

포천시농업기술센터, 온가족 농경문화체험 '2007 쌀사랑 교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는 자리나는 쫄면무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휴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5월27일 손 모

내기를 시작으로 '쌀사랑 교실'을 운영한다. 쌀사랑 교실은 모내기에서부터 벼 수확이 끝날 때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데 먼저 첫 회

인 5월27일 손 모내기와 고구마 심기가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가족별로 자신들의 고구마 밭에 표찰도 새웠다. 또한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벼가 자라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벼 화분, 구절초 화분을 나누어주고 관리요령도 교육했다.

두 번째 교실은 오는 7월8일, 맨발로 논 걷기 체험과 논 잡초 제거, 벼 생육상황 관찰 그리고 우리떡 만들기, 잔디인형 만들기 등으로 진행되며, 세 번째 교실은 오는 9월16일에 고구마 캐기,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 농기계 시승 체험 등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심고 수확한 고구마의 크기, 무게, 모양 등을 놓고 경진대회도 벌인다.

10월21일 네 번째 교실에서는 가족들이 낫을 이용해 손으로 직접 벼를 수확하고, 흙바인 수확현장도 직접 보게 된다. 또한 포천쌀 연구

회 가공센터를 방문하여 벼가 쌀로 도정되는 과정을 견학하고 과수원을 찾아 사과 따기도 체험할 예정이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체험교육을 통해 참가자가 쉽게 농업에 대해 다가서고, 국내 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쌀 소비 고객에게 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5월27일 첫 번째 손모내기와 고구마 심기에는 50여 가족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포천을 비롯해 의정부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로 지난 4월 한달 동안 포천시청과 포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평강식물원, 극단 우물가 야외 공연

6월 6일 아름다운 자연과 어루어지는 한마당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제 5의 계절인 6월은 식물원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이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6월 6일 공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식물원을 찾는 분들을 위해 평강식물원의 잔디광장에서는 극단 우물가의 야외 공연과 이벤트가 준비된다.

이번 공연에는 미녀 관객들의 열기 발랄한 엉터리 서커스 '마드모아젤 쇼'와 영웅 바보, 소심 관객들의 차렷 쇼 등의 유쾌한 공연에서부터, 드라마 마임 '애플트리', '하트'와 함께, 한국의 마르셀 마르소 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품

마임 공연, 삶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구속' 등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연의 시간에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석고마임, 광대마임 등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꽃보다 다양한 것이 자연의 녹(綠)빛이다.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6월의 녹음(綠陰)은 싱그럽다. 이 좋은 계절을 놓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산정호수 관광권 내에 위치해 있어 하루 또는 1박 2일 나들이로도 안성맞춤인 평강식물원으로 지금 곧 떠나보자.

허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임원회의

정기회의에 앞서 회의안건 논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는 5월28일 오전11시 제23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6월 정기회의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 회의록 보고에 이어 3월과 4월 재무보고, 기사타오의 및 건의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안병호 총무는 22차 임원회의에서 2007년 1월2월 재무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고, 정기회의 불출석 및 회비 미납으로 김영진(경북대학 교무처장) 위원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 동야대 김광우 교수를 신임위원으로 위촉할 것을 결의했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말

을 통해 "항상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이신 자문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여러가지 중책을 맡아 바쁘신 와중에도 오를 임원회의에 참석해 주신고 문님과 임원들께 감사 드린다"며 "포천신문이 지역에서 바른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forme65@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⑮ 큰오색딱다구리 (white-backed woodpecker)

숲속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숲속의 의사

한낮의 무더위가 서서히 저물어 가는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카페 '새를 찾는 사람'의 매니저이신 한상욱 님의 다급한 전화목소리가 들려왔다.

포천에서는 가끔씩 관찰되었던 큰오색딱다구리가 보금자리를 틀고 어느덧 어린 새끼 4마리(?)가 동지를 박차고 이소(移巢)를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장비를 챙겨 달려가니 벌써 새끼 2마리는 이소를 한 후였다.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순간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와 동지에 남아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동지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머지 2마리도 빨리 동지를 박차고 대자연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어미의 강한 메시지 인 셈이다.

잠시 머뭇거리던 새끼 한 마리가 동지를 박차고 힘차게 하늘을 나는 처녀비행을 한 것이다.

비록 10m의 짧은 거리의 비행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자연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큰오색딱다구리는 한국 전역에서 볼 수 있으나 번식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비교적 흔하지 않은 텃새입니다.

알을 낳는 시기는 5월초부터 6월말 사이며 동지 속에 부드러운 새의 날개나 이끼류를 갇 다음 3~6개의 알을 낳고 알수 교대로 15일 가량 포란을 하며 부화 후 새끼가 동지에 머무는 기간은 18~35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이 까막딱다구리의 보금자리는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있는 나무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지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신기한 듯 오가는 차량과 행인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신기한 듯 쳐다보는 어린 새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새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오색딱다구리가 먹이를 찾을 때에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일어나 나무가지 또는 나무 밑동에서 먹이를 찾기도 하고 나무 틈새를 탐색하거나 나무껍질을 벗겨 나무껍질 안에 숨어있는 곤충을 잡아먹으며 거미나 개미, 나무열매 등을 먹이로 이용하는데, 이처럼 인간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해충들까지 잡아먹음으로 인해 숲속 생태계를



이소전 마지막 먹이 주는 장면



이소하기 전 세상구경



이소 직후의 모습(2007. 5. 27 포천시 소흘읍에서 촬영)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숲속의 의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이로운 새(益鳥)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큰오색딱다구리의 육추(育雛)과정을 지켜보신 한상욱 님에 따르면 어린 새끼에게 알껍질을 먹이는 장면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어린 새끼에게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어미새의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다음날 새벽 미처 이소하지 못한 나머지 한 마리의 이소를 관찰하려 갔지만 아쉽게도 큰오색딱다구리는 이미 제가 도착하기 전에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는지 저 멀리서 여제 이소한 다른 새끼의 목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적막감만 돌고 있었습니다.

막둥이가 동지를 떠날 때 배운 것을 해주지 못해 좀 서운하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무사히 이소했다는 안도감에 탐조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번식이 끝나고 어린 새끼가 동지를 떠나게 되면 빈 동지는 또 다른 새들의 보금자리로 재활용되어 부족한 숲속의 주택 보급을 증가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우리고장 포천에 큰오색딱다구리가 번식 및 서식을 한다는 것이 확인됨으로써 포천지역 생태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전국 꽃배달 서비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꽃마음은 사랑입니다!



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생화
- 근조화환
- 사랑의 꽃바구니
- 동·서양란



꽃배달서비스
 ☎ 031) 534-9968

대표 김형도 / 포천시 신읍7동 175-8 / H.P 010-7170-6589